

도내 체육꿈나무들, 종목 체험 시간 갖다

하고 싶은 운동에서 재능 확인

육상·수영·레슬링 등
15개 종목 중심으로 진행
실습 위주로 프로그램 마련



2022 체육영재선발대회에 참가했던 전북지역 학생들이 종목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체육 꿈나무들이 스스로 종목을 선택, 체험해보는 값진 시간이 마련됐다.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2022 체육영재선발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본선 진출자·예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종목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체육영재선발대회는 전국 최초로 도 체육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체육 영재 발굴 프로젝트 일환이며 올해에는 지난 8월 예선을 시작으로 본선과 결선이 진행됐다. 이번 체험활동은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꿈나무 선수를 조기 발굴하고, 체육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고, 인기종목이 아닌 비인기종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체육 꿈나무들은 도내 일원에서 육상과 수영,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양궁, 사격, 테니스, 펜싱 근대5종, 조정, 카누 등 15개 종목 가운데 각각 체험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 전문 지도자들로부터 강습을 받았다. 또, 이론이 아닌 실습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평소 관심이 있던 종목을 몸으로 체험하며 자신의 재능을 확인했다. 도 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은 "체육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지난 22일 완주 복싱협회 회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및 창단식을 가졌다.

“복싱 통해 지역 빛낼 자양분 되도록”

완주 복싱협회 창단... “각종 대회 등 통해 군민 접근성 쉬워질 계기 만들 것”

전북 완주군에 복싱협회가 창단됐다. 24일 완주 복싱협회(회장 권오석)에 따르면 지난 22일 복싱협회 회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및 창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권오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완주군 전북체육고등학교가 체육(복싱포함) 육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나 중등부, 고등부, 실업팀 창단에 대한 추진과 완주군 복싱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부재로 인해 복싱 스포츠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 전문 선수 및 지도자 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복싱이 생활체육으로서 인식되어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며 “완주 복싱협회 창단을 계기로

복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복싱 선수들을 양성해 완주를 빛낼 수 있는 좋은 선수를 키워 내고 또한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해 복싱을 통해 완주군을 우리나라 또는 국외에서 주목받고 빛나게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오석 회장은 “완주군수배 생활체육 복싱대회, 회장배 복싱대회, 완주 로컬푸드 생활체육 복싱대회, 전국 생활체육 복싱대회, 중학교 고등학교 복싱 육성학교 및 실업팀 창단 등을 통해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주=이중복기자

2022 월간더문화

11월

겨울나그네 박흥우, 이영신

공연시간

11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장소

문화공간 이름



프로그램

F. Schubert Winterreise D 911

- | | | |
|-------------------------|--------------------------|-------------------------------|
| Gute Nacht(굿나잇) | Irrlicht(도깨비불) | Im Dorfe(마을에서) |
| Die Wetterfahne(풍향계) | Rast(휴식) | Der stürmische Morgen(폭풍의 아침) |
| Gefrome Tränen(얼어붙은 눈물) | Frühlingstraum(봄날의 꿈) | Täuschung(환상) |
| Erstarrung(얼어붙음) | Einsamkeit(고독) | Der Wegweiser(이정표) |
| Der Lindenbaum(보리수) | Die Post(우편 마차) | Das Wirtshaus(여관) |
| Wasserflut(넘쳐흐르는 물) | Der greise Kopf(늙은이의 머리) | Mut!(용기!) |
| Auf dem Flusse(냇물 위에서) | Die Krähe(까마귀) | Die Nebensonnen(환일현상) |
| Rückblick(돌아봄) | Letzte Hoffnung(마지막 희망) | Der Leiermann(거리의 악사) |

김제시, 스포츠 마케팅 ‘결실’

26~30일 김제실내체육관서 전국 초등생 태권도대회 개최

김제시의 스포츠 마케팅이 결실을 맺고 있다. 김제시에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될 전국 초등학생 태권도대회를 유치했다. 대회는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김제시가 후원하는 '제2회 한국초등연맹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초등학교태권도대회'로 2300여명의 선수가 참가를 신청해 학생·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회기간 2,000여명의 지도자 및 선수 가족들도 김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부터 3년연속 김제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협약이 연맹과 체결되어,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또한 한국초등연맹에서는 대회 포상금으로 역대 최대금액인 1억원을 마련해, 그 어느 대회보다 참가팀들의 열띤 경기가 예상된다. 김제시는 이번 대회는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 개최하는 전국대회 중 올해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대회로, 지난 전국대회 입상자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명실공히 전국 최고 대회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어린 꿈나무 선수들은 대한민국 태권도의 희망이면서 미래 주인공들로, 함께 찾아주신 학부모 및 지도자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대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숙박업소, 식당, 관광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내년 아시아탁구선수권 평창 개최 최종 확정

9월 3~10일 평창동 경기장서

내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가 한국 평창에서 열린다. 평창군은 지난 18일 태극 방목에서 열린 2022 아시아탁구연맹(ATTU) 총회에서 2023년 제26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가 평창군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2023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는 내년 9월3일부터 10일까지 평창동 경기장에서 열린다. 세계 최강 중국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탁구스타들이 평창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25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단체전 금메달, 여자단체전 은메달(이상수), 여자복식 금메달(전지희-신유빈), 여자단체전 은메달, 여자단식 은메달(신유빈), 남자복식 은메달(장우진-임종훈), 혼합복식 은메달(장우진-전지희), 남자단식 동메달(장우진) 등 전 종목에서 메달이 나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는 이듬해 부산에서 열릴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전초전이다. 남녀 각 10장씩 세계대회 단체전 출전권이 이 대회에 배정됐다. 또 2024 파리올림픽 단체전



지난 18일 태극 방목에서 열린 2022 아시아탁구연맹 총회.

과 혼합복식 출전권이 각 1장씩, 개인단식 출전권도 남녀 각 2장씩 배정됐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이번 대회를 통해 Happy700평창의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탁구 마니아들의 방문으로 숙박·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도 함께 했다”며 “올림픽 경험을 살려 이번 대회 역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